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5월 20일 (토) 제 192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TGC, 밥 코플린 목사가 말해주는 예배에 대한 5가지 귀중한 교훈 소개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나’도 ‘우리’도 아니다”고 밥 코플린 (Bob Kauffman) 목사는 강조한다.

그는 Sovereign Grace Music의 디렉터이다. 그는 회중 예배를 위해 목회자와 음악인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미국 켄터키주의 로이스빌에 있는 Sovereign Grace Church의 음악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worshipmatters.com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참된 예배자’의 저자이다. 코플린 목사는 본인의 회중 예배 경험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Worship Isn't About You: What I Learned After Years of Leading).

1997년이었다. 그전까지 12년 동안 목사로 섬긴 나는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고 있었다. 그 교회에서 내 초점은 목양이 아니라 음악과 예배였다. 피아노로 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밴드와 연주 여행을 했고, 무려 20년 넘게 회중 예배를 인도했으며 심지어 예배 앨범 몇 개에도 이름을 올린 나는 찬양 예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 교회에 도착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마하니(C. J. Mahaney) 담임 목사님이 불쑥 내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책 세 권을 내밀며 읽으라고 했다. 그중 하나가 생전 처음 들은 데이비드 피터슨이 쓴 Engaging with God: A Biblical Theology of Worship(하나님과 관계 맺음: 성경적 예배 신학)이었다. 내 눈에 그 책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학술서로만 보였다. 게다가 피터슨은 음악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마하니 목사님이 추천한 책인 만큼 나는 읽기 시작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다음 구절이 나왔다.

“그렇다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경험이나 감정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감각 또는 일종의 종교적 엑스터시,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낮아짐(humiliation)의

느낌과 동일시되어야 하는가? 기독교 집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는가? 예배 수준이 참가자들의 체험 정도에 따라서 측정되어야 하는가?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주관적인 접근 방식을 종종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 체험은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책 여백에 나는 “좋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이 구절을 계속 생각하는 중에 점점 더 그가 한

마지막 말에 마음이 불편했다. “감정적 체험은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때까지 나는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특별한 순간”으로 여겼다. 보통 찬양 두세 곡을 부르고 나면 그런 순간이 도래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배에 더 깊이 참여했고, 뭔가 자발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생각에 이견 성전이 등장하는 구약의 양식과 정확하

게 일치했다. 우리는 바깥뜰에서 시작하여 안뜰을 거쳐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말이다. 예배 인도자로서 나는 교회를 “지성소”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 순간을 기대한다(사 12:6).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델러스에!

연론, 델러스 총기 난사 사건 후 이어지는 추모 예배/대책 보도

텍사스주 델러스 ‘엘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예배와 철야기도회에는 위로의 눈물로 가득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아울렛’ 인근에 있는 코튼우드크릭교회에서 추모예배와 철야기도회가 드러졌다.

사망자 중에는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3살 난 둘째아이가 포함됐으며, 6살 된 큰 아들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이들은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교외 캐럴턴에 소재한 한인침례교회인 뉴송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철야기도회에는 지역 주민과 경찰, 공무원 등 수백여 명이 교회에 모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레 애벗 텍사스 주지사, 덴 패트릭 부주지사, 켈 팩스턴 주 검찰

총장, 켈 폴크(K엘런 시장, 베인 브룩스 시장 후보자 등이 예배에 참석했다.

특히, 켈 폴크 엘런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엘런시와 10만 9천명 주민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엘런을 집으로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시민들로 가득 찬 곳이다. 우리는 충격에 빠졌고 모두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튼우드크릭교회의 그레마 골딩 교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고린도후서 1장 3-4절을 낭독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양경선 목사



4면 교회선교의 선순환 조용중 신교사



13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
2023년 6월 19일(월)~21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강사 김성민 목사
Cambridge University 물리학 학사
King's College London 물리학 석사
London School of Theology 신학 석사
런던 순복음교회 부목사(중고등부 담당)
대상 한인 청소년 선착순 100명 (2023년 8월 기준 6학년~12학년)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교회의 학생에 한함
등록기간 5월 26일(금)까지
등록비 무료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 5:13)

등록 문의
www.lafgc.com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951.928.4415
lafgcd@gmail.com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5th Joint Youth Retreat

등록하기

SCAN ME!

발행인 칼럼

준비됐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연식을 했다. 아내가 해 준 생애 두 번째 연식이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연식에도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모든 일은 사전(事前)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겠는가. 준비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준비가 잘 될수록 좋은 열매를 거둔다.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준비가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일갈(一喝)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 6:6-9) 개미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준비 없는 내일을 보내며 그럴듯한 내일을 만날 수 있겠는가.

며칠 있으면 필자가 속한 교단 총회가 있게 된다. 본인이 섬기는 노회와 교회가 준비하여 맞이하는 총회이다. 총회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몇 날의 총회를 위하여 거의 일 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야와 내용들이 대단하다.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빠트린 것이 있을세라 점검하고 또 두루 살핀다. 준비하는 자들의 진지함에 지켜보는 자의 숙연함을 금할 수 없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몇 날 후에 교회 직분자 투표가 있다.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다. 준비된 그릇이란 깨끗한 그릇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1)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밭을 디딜 땅도 준비함 없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그들의 밭을 어디에 디디며 갈았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 때 항상 부르신 자리에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다. 눈을 들어 온 땅을 둘러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원(資源) 들이다. 나를 잘 살펴보라. 하나님이 내게 심어 주신 재능(才能)이 노다지 같이 묻혀있다. 이 놀라운 자원과 재능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없다, 없다'의 빈한(貧寒)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동산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물리적인 자리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스스로 대답해 보라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보려는 아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기를 영원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지 않은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준비됐는가?"

지식의 양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Wired, 의학적 정보양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영역에서, 챗봇 능력은?

챗봇(Chatbot)은 의사들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연구자들은 힘든 윤리적 결정에 있어 AI를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최신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는 매거진(Wired)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ChatGPT Can Help Doctors-

and Hurt Patients: The chatbot is tempting physicians with its ability to spout medical information, but researchers warn against trusting AI with tough ethical decisions).

스탠퍼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카이저 퍼머난테의 CEO였던 ROBERT PEARL은 "이제는 청진기보다 AI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Pearl은 더 이상 임상을 보지는 않지만, 그는 ChatGPT를 사용하여, 환자의 치료상황을 요약정리하고, 레터를 작성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진단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의사들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사람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수십만 개의 유용한 봇(bot) 응용 프로그램을 발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OpenAI의 ChatGPT와 같은 기술이 구글 검색의 우월성에 도전하고, 산업 변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에 따라, 언어 모델이 프로그래머, 법률가, 의사와 같은 사무직(white-collar) 노동자들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는 해당 기술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두고 의사와들 사이에 논의를 촉발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언어 모델이 디지털 의료 기록에서 정보를 찾아내거나, 환자에게 길고 기술적인 내용을 요약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의사를 속이거나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 계획으로 이어지는 부정확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AI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 강사 Heather Mattie는 ChatGPT를 처음 사용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인 HIV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모델링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요약을 요청했다. ChatGPT는 그녀의 지식 밖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ChatGPT가 의학 논문에서 완전히 다르거나 상반되는 결론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답변이 적절하거나, 유해한지를 결정하는지 궁금해했다.

Mattie는 사용자가 봇(bot)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텍스트 요약과 같은 업무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attie는 ChatGPT가 인종 및 성별 편향적 기록이 있는 심혈관 질환 및 환자중증도평가에 대한 진단 도구를 어떻게 다룰지 우려했다. 또한, 그녀는 ChatGPT가 종종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의학 지식과 의료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ChatGPT가 일반적인 치료라고 언급할 때 그 정보를 어느 시점에서 가져오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최신 정보일까, 이미 지나간 것일까?"

또한, 사용자는 ChatGPT 스타일의 봇이 허구 또는 잘못된 정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응답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미묘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 1월 발표된 ChatGPT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는 챗봇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관성 없는 도덕적 조언자를 만든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의사가 되는 것은 백과사전적인 의학 지식을 되뇌는 것 이상의 것을 갖춰야 한다. 많은 의사들이 텍스트 요약과 같은 위험도가 낮은 작업에 ChatGPT를 사용하

는 것은 열광하고 있지만, 생명윤리학자들은 의사들이 생존 또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와 같은 어려운 윤리적 결정에 직면했을 때 봇에게 의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을 우려한다.

에든버러 대학 Technomoral Futures 센터 생명윤리학자 Jamie Webb은 "이러한 종류의 단계(윤리적 문제를 봇에게 의존)를 생성형 AI 모델에 맡기거나 자동화되게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작년, Webb과 도덕 심리학팀은 의학에서 사용할 AI 기반 "도덕적 조언자(moral adviser)"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Webb과 공동 저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서로 다른 윤리 원칙 간에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의료종사자가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대신 봇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도덕적 탈숙련화(moral de-skilling)"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마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유재명 목사 초청부흥집회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일시: 5/19(금) - 5/21(주일)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문의: 행정실(213-749-4500)
안산빛나교회 담임
5/19(금) 7:30pm 믿음이 주는 축복(창22:14)
5/20(토) 6:00am 믿음이 믿음에 되는 원리(롬1:16-17)
7:30pm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상(창6:5-14)
5/21(주일) 1부 8:00am, 2부 10:30am, 3부 1:00pm 뜻을 품은 다니엘(단1:8-9)
김윤진 간사 찬양간증집회
일시: 6/2(금) 7:30pm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90015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1면에서 계속)

피터슨의 글은 나로 하여금 그때까지 잘 모던 예배 신학과 대면하게 만들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감각 또는 일종의 종교적 엑스터시,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낮아짐의 느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음 다섯 가지 귀중한 교훈을 포함하여 내가 놓치고 있던 진리를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1.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예배의 중심에 나를 놓으려고 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내가 체험한 것과 놓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했다. 설혹 나를 뺀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예배의 중심에 우리를 두었다. 몇 명이나 모였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손을 들고 찬양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점차 내가 놓친 것은 우리의 욕망과 계획과 행동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듯이(요 17:5), 예배의 본질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하고 계신 일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근거하며, 또 그분의 영에 의해 가능해진다(요 4:23-24; 엠 2:18; 빌 3:3). 피터슨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인간의 직감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 있다”(26). 우리의 역할은 단지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는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바치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향하는 제사가 되게 바꾸셨다(벧전 2:5).

2. 찬양 체험으로 예배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 나는 예배가 단지 찬양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쓰는 말은 나의 신학을 드러냄과 동시에 내 신앙 수준을 형성했다. “마지막 찬양에 이르러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끝나고 다시 예배에 돌입하겠습니다.” “늦으면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다. 이런 식의 말은 결국 예배란 수도꼭지처럼 하나님이 틀었다가 잠그는, 영적으로 주입된 음악적 경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강화했다.

찬양과 예배를 거의 동일시하는 오늘날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이 둘이 함께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녀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욥 1:20). 요한복음 4장을 보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음악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요 4:21-24).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하는 다양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는 경건, 봉사, 복종, 명예와는 관련이 있지만, 음악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순 있지만, 결코 예배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3. 예배는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상 인간이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단 한 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애정과 관심과 충성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향하거나, 그게 아니면 결코 만족과 위로와 구원을 줄 수 없는 우상을 향한다. 결국 나는 이미 무언가를 예배하는 상태에서 매 주일 교회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화음이나 좋은 말씀, 은혜 넘치는 “분위기”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특별한 순간”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모든 삶을 추구할 때 형성되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주일 아침에 교인에게 인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찬양하는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예배를 계속한다(히 13:15-16). 기꺼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 예배 후에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예배 행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를 위해 손님을 초대할 때도, 손님을 보내고 청소할 때도,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된 감사하는 종의 마음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신실하게 추구하는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성경이 별개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시 29:2; 행 13:2). 그러나 그 예배는 삶 전체에 걸친 “영적 예배”(롬 12:1)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

4.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동일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경이로움, 감사함, 경외감, 예배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사 6:3; 계 4:8; 5:13-14). 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엡 2: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 산, 골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히 12:22)에게로 인도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뿐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고전 6:19).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오늘도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마 28:20; 요 14:16; 히 13:5). 그러나 여럿이 모일 때 하나님은 종종 주권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경험적으로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신다(행 4:31; 고전 12:7; 고전 2:4; 살 전 1:5). 넓은 좁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감정이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과 모순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벧전 1:8), 마음의 악함을 통회하고(고전 14:24-25), 거룩함을 더 추구하도록 도전받고(고후 6:16-7:1), 확신이 더 강화되며(히 13:5-6),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벧전 1:8).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자!

5.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한다. “그리고 말미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골 3:17). 예배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성령의 지속적인 응답이다. 예배는 굳이 음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감정의 영역으로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할 수도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거둬들여 초대하시는 천국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형제자매여,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식이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들에게 예배는 결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시론

‘함께’ 정신으로 모이는 총회가 되자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벌써 30년 전에 만난 제목이 꽤 유명한 소설이 있다.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3년 당시 한국사회는 아직 ‘여성’이라는 단어가 그리 편안하게 다루어질 때는 아니었다. 가부장적인 유교적 문화가 여전한던 당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차별과 억압과 보이지않는 사회적 폭력(?)들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하고 놀리는 억울함이 여성들에게 있었다. 그 시대 속에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작가는 소설로 외친 작품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도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다’는 절규가 아니라 홀로 서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은 작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소설은, 세 명의 여성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話者)로 등장해 마치 읊기의 구성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혼여성으로 살아가는 해완과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해가는 경혜 그리고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영선이라는 세 여인을 통해 작가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각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면서, 작가는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니지않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단하고 불행한 세 여성들이 그 불합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의 부조리(不條理)때문이라고 풀어간다.

30년이 지나 이 책을 다시 훑어보는데 다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다.

“난 우리 연지한테 가르칠거야.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더 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언제나 제 뒤통, 아무도 모르는 제 뒤통 남겨 놓으라고. 근데 해완아, 왜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재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모욕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녀 자신의 말대로 누구도 자신을 발뚱개처럼 밟고 가도록 만들지 말아야 했다.”

물론 이 소설은 단지 여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에 대한 대비(對備)를 호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쯤, 이런 대사와 독백을 통해 30년 후 독자들인 우리는 당시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답을 해주는 사회를 이뤄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그래서 불안한 이 시대들 들여다보게 된다.

사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불교의 수타니파타라는 범구경에 나온 말에서 차용한 제목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때는 혼자서 묵묵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의 글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혼자서 가라’는 메시지 속에 오히려 ‘함께 대화하며 찾아가보자’는 권유를 담고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뿔이 양쪽에 2개씩 달린 짐승들과 다르게 코 한가운데 하나만 솟아있는 뿔을 가진 무소(인도 코뿔소)처럼 ‘혼자가라’는 역할적인 제목을 통해 작가는 오히려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이다. 그래서, 노회라는 조직과 총회라는 조직을 통해 ‘모두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총회가 모든 노회 소속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열린다. 어디에나 가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신 정신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올해 총회도 동참,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귀한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아름답게 기록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알림

다음 주 신문(5월27일 자)은 본지 발행인 및 편집국장의 총회 참석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전화

제25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



생명의 전화는 한인들이 이민생활에서 겪게되는 고민, 즉각등과 좌절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어려울 때에 항상 곁에 있는 친구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견디며 지치고 더욱 힘들어 하는 동포들을 위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상처입은 이웃의 참된 친구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상담역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본인의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추스르는데 전문박사님들의 조언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권유합니다.

- 장소**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목사 시무) 교육관 (213)381-2202
170 Bimini Pl., LA, CA 90004 (Vermont 1가 or 2가로 진입)
- 신청주소** P. O. Box 741077 Los Angeles, CA 90004
* Check payable to 'Shalom Life Line' (수표발행시)
- 문의전화** (213)480-0691 (전화등록 먼저 하세요)
-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오후 7시 - 9시 30분까지 강의
- 참가비** 6월 10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등록하는 자는 \$70
부부신청은 \$120 그 이후에 신청자는 \$100, 부부신청은 \$160
(목회자나 신학생은 \$50 부부신청 \$80)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상담전화** (213)480-0691(영육구원) [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일자	요일	강의 주제	강사	강사 소개
6월 20일	화	개강예배 및 Orientation	박다윗 목사 곽건성 목사	생명의전화 원장 예은 장로교회 담임
6월 22일	목	자살위기에 처한 벗어날 돕는 상담 기법	원유선 박사	신경정신과 박사
6월 27일	화	생명의전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다윗 박사	생명의전화 원장
6월 29일	목	50년 정신질환 임상경험을 통한 전화상담	조만철 박사	신경정신과 박사
7월 4일	화	효과적인 경험과 공감기법	박윤우 박사	전 성균관 대학교 교수
7월 6일	목	팬데믹 이후에 정신건강	김자성 박사	신경정신과 박사
7월 11일	화	회복 탄력성과 상담	김현경 박사	World Mission University 교수
7월 13일	목	트라우마 극복치유를 돕는 상담기법	송경화 박사	World Mission University 교수
7월 18일	화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상담 기법	원준교 박사	목회상담학 박사
7월 20일	목	그룹토의 및 인터뷰 시간표 작성	원장 및 스태프	모니터링 실습
7월 25일	화	우울증 극복을 돕는 상담 기법	조나단강 박사	임상심리학 박사
7월 27일	목	수료감사예배	박다윗 목사 곽부환 목사	생명의전화 원장 한마을 제자교회 담임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1994년 미국 시애틀에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민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끌어 주실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청빙요건

- 장로교의 교리와 규례를 준수하며,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기에 결격사항이 없는 분으로서, 영혼 구원과 목양 및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 (M.Div. 이상)하신 분
- 만 40세 이상으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5년 이상(부목사, 신학대학 교수 및 선교사 경력 포함)의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웹사이트(http://www.seattleonnuri.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목사 안수 증명서
-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추천서 (2인)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5편 (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가장 최근 목회한 교회 주보 1장

보내실 곳

- Email: seattleonnuri4@gmail.com
- 우편: Seattle Onnuri Church (Attn: 청빙위원회)
-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USA
- 제출마감: 2023년 5월 31일

문의 및 안내

- 모든 문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seattleonnuri4@gmail.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확인 및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해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seattleonnuri.org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몬토네 (Montone)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겨울의 쌀쌀함을 온 몸으로 때운다. 지난겨울은 더더욱 그랬다. 날씨가 쌀쌀하게 되면 털옷, 몬토네가 한결 그리워진다. 가족 코트로 속은 하얀 양털로 구성된 몬토네는 겨울철의 추위를 막아주는 든직한 옷이기 때문이다. 이 몬토네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린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자,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는데 그 때 희생된 것은 숫양이었을 것이다. 쌀쌀한 겨울, 난방이 없는 교회당에서 그 옷을 입고 강대상에 앉드린

때, 어머니 품속 같은 따사함에 늘 안온함과 평안을 느끼곤 했다. 그런 때마다 L 장로님을 생각한다. 그는 90년 대 초에 로마대사관의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통은 주말에 구경할 데가 많은 이탈리아에 여행가기에 바쁘는데 그분은 여행보다 교회를 선택하고 그 일이 더 즐겁다고 고백하곤 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어느 날, 시내 중심지에 있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가죽옷 가게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반코트인

몬토네를 선물했다. 당시로 \$1000 조금 넘는 큰 금액이었다. 곧 로마를 떠나야 하는 외교관으로부터 이런 선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몬토네를 30년 가까이 입을 수 있었고, 은퇴할 때 비로소 벗었다. 몬토네를 통해 따사함의 온기가 온몸에 전달될 때마다 그 장로님을 기억하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전류처럼 온 몸을 순환하고 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딤후 1:3)라고 했는데, 디모데의 어떤 헌

신이 바울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가 생각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당사자 디모데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겠다 싶다. 스승,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간에 그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잊힐 수 없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매체가 된다. 이 세상과 천국에서도 말이다. 나는 그분과 3년 정도 교제했지만, 영적으로는 공간을 뛰어넘어 평생 교제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유는 앞드릴 때마다 그가 선물한 몬토네가 어김없이 온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몬토네를 입고 그 따뜻한 열기가 몸을 휘감는 순간 그가 떠오르고, 마치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잊었겠지만 그를 향한 씬 없는 기도가 그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놀라운 축복으로 은퇴 후

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는 본래 대단히 성실하고 운유한 분으로 어떤 조직,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다. 후에 들었는데, 그는 대령으로 근무 중 장군 심사에 합격하였으니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장군이 되지 못하고 전역하였다. 부부가 크게 상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는데 전역하고 대형 교회의 상근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본 교회도 아닌데--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교회의 모든 부분을 정비하였고, 70이 넘어 정년으로 퇴직해야 하는데도 몇 년 더 일해 달라는 간청을 받아 현재도 교회에 소속된 대학교의 자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령을 현역하고 70이 넘는 지금까지 현역인 셈이다. 사실 장군으로 진급해도 2년 정도만 더 근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 비해 그는 대장에 진급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받는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내게 몬토네를 선물한 것 이상의 아

다운 헌신이 지속되었으리라 믿는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더 큰 감동을 받게 마련이다. 몬토네, 을씨년스런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꺼내 입게 되는 양가죽으로 된 털옷, 비록 낡고 바랬으나, 추운 겨울, 강대상에 앉드릴 때마다 등을 따사하게 만들어준 그 고마운 옷은 결코 잊힐 수 없는 사랑의 열매요, 기도하게 만든 요소였다. 이제 은퇴함으로 벗게 되었지만, 그 몬토네는 30년 동안을 함께한 이웃으로 결코 잊지 못하는 가족옷이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목회자에게 문신처럼 새겨지게 된다. 고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런 헌신은 당사자로 하여금 놀라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매체가 된다고 믿는다. 참으로 고마운 몬토네다. 돌아볼수록---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양경선 목사

(샘물교회, KAPC 남가주노회 노회장)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광야의 사진을 보시면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고요하고 적막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다윗이 저 광야에서 양 떼를 쳤으니 광야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 왕에게 요청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대 교회에게 경고하신 대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곤 아돌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다윗을 지지하는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가보니 아돌람 굴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굴이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그 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물리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은 받아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960명 전원이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영광되게 죽기를 결심했다고 7명의 생존자가 증언했다고 합니다. 마사다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목욕탕, 물저장소, 곡식 저장소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3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

니다. 사해는 응고된 소금 덩어리가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금층은 두껍고 단단하며 날카로워서 반드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해는 소금 바다를 뜻합니다. 사해에서는 염도가 대단히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수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소금 덩어리만 보입니다. 클레오파라는 사해 소금의 효능을 극찬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사무엘상24:1~7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엔게디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다 하니” 다윗은 공로를 많이 세웠지만 사울의 질투심은 높아만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했고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라마 밖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에 제사장 아히멜레이 있는 농으로 갔다가 그곳도 안전하지 못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니 다윗이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광이인 체하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치고 나니 600명으로 추종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십 광야 수풀에 숨었을 때에 십 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일행이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다가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숨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험한 계곡에 있는 곳이었지만 엔게디는 산지로 엄청 더 험한 곳입니다. 오늘 분문을 보면 이곳에 있는 동굴에 사울이 낮잠을 자다가 다윗이 사울의 겂옷 자락을 베었습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였을 터이지만 다윗은 옷자락 베는 것으로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엔게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일어날지 모를 쿠데타가 두려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과 북쪽에 도피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중 남쪽에 마련해 놓은 도피처를 마사다라고 부릅니다.

마사다는 사해 서쪽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절벽요새입니다. 높이 400m, 정상은 길이 600m, 폭 250m의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사다는 헤롯왕의 요새인 동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 전쟁 최후의 비극적 격전지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들은 4년간, 여자들은 2년간 의무복무하는데 바로 마사다에서 훈련을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열십당원 약 960명이 마사다 요새로 피신하여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무려 3년을 버텼습니다.

마사다의 험난한 지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은 가장 낮은 동쪽에 엄청난 토담을 쌓아 올려 결국 3년 만에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전날

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요 결국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이 살지 못하는 사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듣기로는 사해에서는 부력이 높아 그냥 몸만 뒤로 젖히면 동등 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닷물이 눈과 코와 입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뒤로 누웠더니 동등 뜨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크게 소리를 치는 바람에 눈과 입에 동시에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해의 바닷물이 그렇게 잔지 몰랐습니다. 손으로 눈을 씻을 수도 없어서 눈물이 자연스레 바닷물을 닦아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해의 주변에는 마사다가 있고 엔게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콤란은 북쪽에 있습니다. 사해는 유대 광야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남북으로 67km, 동서 방향으로 18km에 걸쳐있는 엄청 크지만 완전히 폐쇄된 바다입니다. 또한 해저 421미터로 지표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함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롯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유향불로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탈출은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32절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을 잡으려고 돌이키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망합니다. 지금은 평평거리질 몰라도 인자가 오시면 누가 크게 소리를 치는 바람에 눈과 입에 동시에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해의 바닷물이 그렇게 잔지 몰랐습니다. 손으로 눈을 씻을 수도 없어서 눈물이 자연스레 바닷물을 닦아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해의 주변에는 마사다가 있고 엔게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콤란은 북쪽에 있습니다. 사해는 유대 광야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남북으로 67km, 동서 방향으로 18km에 걸쳐있는 엄청 크지만 완전히 폐쇄된 바다입니다. 또한 해저 421미터로 지표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함

sammoolyang@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전통적인(잘하는 학생에게) 상급주는) 채점 방식을 버리고 '평등(equity)에 기반한 방식을 채택

그동안 저희 단체(Tvnext)에서는 미국 공립학교 -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Deep Blue States - 주정부 교육청의 지휘 아래, 문란하고도 연령에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의 Action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며 미연방 교육청은 오바마 전대통령이 성공시킨 젠더성향 - SOGI (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의 교육을 뛰어넘어 정신, 육체적으로 심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이 위험하다는 트랜스 젠더 삶을 아이들이 동경하도록 부추기고 있음도 알려드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상, 이념 교육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리곤 했는데 반성경적, 반미국 청교도 사상들을 학생들에게 급하게 세뇌하는 CRT (Critical Race Theory)라는 결국은 공산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개념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려 드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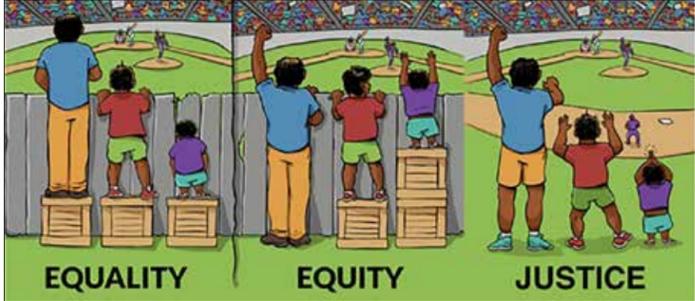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런 공립학교의 참담하고 안타까운 실태를 고발하며 지적하는 교육의 전문가인 한 교수님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나눕니다.

Truth for a New Generation 단체의 알렉스 맥팔랜드(Alex McFinland)박사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교수이고, 교육권 전문가로 알려진 분으로, 지금 미국 공립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맥팔랜드 박사는 "막시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자(Socialist, Social-Communist)들이 국가의 공교육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공립학교가 전통적인(잘하는 학생에게 상급주는) 채점 방식을 버리고 '평등(equity)에 기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윗 그림: 누구에게든 설명없이 그림만 보여주면 특별히 학생들 대부분은 "평등 Equity"으로 둔갑한 "평등 Equality"를 정의(Justice)로 굳건히 믿을뿐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윗 그림에는 너무나도 많은 오점들이 있기에, 보는 그대로 간단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윗 그림을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사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 성경적 세



계관 강의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맥팔랜드 교수는 "'평등(Equity)에 기반한 채점'의 이론은 학업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럴싸한 이론으로 들기에는 좋은 거 같지만, 이런 '평등'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이미 사회/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반대할 잘못 착각하는 "평등"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개인 학생의 수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평민들에게는 그들의 통제자)에 따라서 인지되는 지식에만 의존하게 한다. 따라서 극히 주관적인 지식이며 밸런스가 잡혀진 지식이라고 하기는 더 더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Socialism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향하는 것을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있기에 통제자가 주관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 되려는 지는 역사가 다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맥팔랜드 교수는 연이어 "점점 공립학교 프로그램들과 수업 과정을 보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완료의 의미가 사라지고 제출 마감 시한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교육 제도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걸까?"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critical thinking skills, 밸런스 있는 생각 능력과 통찰력,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제출 마감 시한도 없어지고, 프로젝트 완료 의미까지 사라지는 수업에 어떤 목적의식, 성취할 기분이 생길까요?

맥팔랜드 박사는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학생들을 현실 세계에 준비시키는 기능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공립학교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사상(사회 공산주의에 기초한 "평등")을 다음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대회에서 잘한 학생이나 못한 학생들까지 모두가 똑같이 '참가상' 트

로피를 받는 것과 같다. 이러한 "평등-Equity" 시스템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만이 받아야 할 A 점수를 Class (반)의 다른 학생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A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계속하여 학업에 매진할 동기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합격하고, 모두가 트로피를 받고, 모두가 A학점을 받는다면 동기 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왜 일하고 투자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요?" 변증가이기도 한 McFarland 박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교육 말고도 현 미국 공립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평등(equity)'에 기반한 채점 방식은 분명히 공립학교의 실패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McFarland 박사는 "이것이 공교육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미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뒤처지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빼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시즘 사상을 따르는 '사회주의자(socialists)'들이 공교육을 담당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또는 TVNEXT.org 에서 더 볼 수 있다.

<참고>

학교에서 위험한 사상/이념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음이 이미 여러 번 검증되었기에 저희단체는 올 여름에 있을 "성경적 세계관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아카데미" 에서도 이와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녀들을 등록시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TVNEXT.org 홈페이지 있는 아래링크에 가서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이상이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30대의 나이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과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보니 벌써 나이가 6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비즈니스도 접고 은퇴하고 남은 노년의 때를 의미있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요?
- 롤링힐스에서 정장로가

A: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주로 3부류로 나눕니다. 65-74세를 노년초기, 75-84세를 노인중기, 85세 이후를 노년후기로 구분합니다. 현대 의학과 수술 덕분에 우리 몸의 평균 수명이 과거 보다 훨씬 길어진 것이 사실이며 의학자들은 인체의 평균 수명이 거의 120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올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라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라

첫째 노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년은 우리가 완주해야 할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물간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 70살이 넘어도 10-20년은 더 그리스도를 위해 원기 왕성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몸 관리를 잘하시면 얼마든지 노년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국의 제임스팩커(J.I.Packer)교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년(Finishing our course with joy)' 책에서 토마스 켄(Thomas Ken)의 권고를 3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루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그날 그날 계획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주님과 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내면의 영적 건강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공상과 끝없는 향수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책장암으로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말입니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나는 성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죽음이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사람은 나같은 뒤떨린 인간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다면, 그다음부터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부를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뿐이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장막의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해주라. 그리고 타인에게도 잘해주라.

그러므로 우리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멀지 않은 시기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년 제3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 제3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제공합니다 (Youtube:KAPCQ)

설교 : 백운영 박사(영생장로교회 담임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

일 시 : 2023년 6월 5일(월) 오후 7시
장 소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 463-7163, (718) 886-4040

신학석사(Th.M): 함미희, 허 준, 황동수 수료:김정미, 이명옥
목회학석사(M.Div): 김 경, 김해련, 김호중, 박찬유, 이성주
임지홍, 주경옥, 감진원, 이종배, 최재만
기독교 교육학석사(M.R.E): 박경희
선교학석사(M.Miss): 김성은
신학사(B.Th): 김지현, 김혜환, 성혜경, 송점숙, 차동미, 차진희
에르킨굴, 파핫, 르스켈디, 누르지나, 알렉산드르, 제니스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통곡할 만한 자리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을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이지만 말세가 이보다 더 하라 싶은 다사다난함이 바로 현재이다. 그 어떤 말로도 불확실한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이런 때를 예측했음인가? 조선 후기의 뛰어난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 수록된 기행작품 중 한 편에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 이로우나.'라는 대목이 있다. 호곡장(好哭場) 즉 울기 좋은 장소라는 의미다. 통곡할 만한 자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박지원은 벼슬이 없었으나 정사인 삼종형 박명원의 군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일기 형식의 기행문을 썼는데 압록강을 건너 사방이 탁 트인 요동벌판에 들어서면서 '한바탕 통곡하기에 좋은 곳이구나' 하며 무릎을 쳤다. 그 말을 들은 정진사라는 사람이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인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묻자 "그렇긴 하나 글썽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르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을 뿐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 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 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라며 대답했다. 이에 정진사가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박지원은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에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까지 두 번 다시 울음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

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꽂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 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 시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께맨 듯하고 고급의 비와 구름으로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라는 대목이다. 칠정 중 슬픔만이 울음의 이유가 아니라 그 모두 다 울컥 감동이 치받아 소리 내어 울만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의 생김새는 참신한 샌님과는 한참이나 멀었다고 한다. 우락부락한 외모에 성격까지 괄괄하여 보이고 생각나는 대로 내질렀을 듯하다. 그런 박지원이 만약 이 시대를 직시한다면 그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이게 세상이냐고? 이게 민주냐고? 이게 자유냐고? 사람은 다 어디에 갔나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수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언제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셈인가?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당부를 잊고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미련을 언제까지 지속하려는가?

비좁은 조선을 벗어나 탁 트인 요동벌판을 대하면서 한바탕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며 억눌린 상념을 표출했던 박지원의 손가락이 지금 나 혹은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며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기독교도인 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다사다난한 이 시대를 보며 온 세상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무어라 하실까? "너희의 하나님 이름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며 불꽃같은 두 눈을 치프시지 않을까? 그러실 하나님께 어찌 반응하겠는가?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도인 나와 또 우리는 이사야처럼 통곡하며 외쳐야 될 것이다. "...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 수상한 이 세상엔 지금 우리의 절대 통곡이 필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전지전능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잡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 청년실업률 20% 돌파... "경제 회복에 우려스러운 신호"

중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업률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16일 16~24세 연령대의 4월 실업률이 2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19.6%)보다 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도시 전체 실업률은 전달(5.3%)보다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약 1158만명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시장이 여전히 신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지난 3년 동안 취업자 수가 4100만명 이상 감소한 이후에도 발생했으며, 이는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타격과 고령화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텔레워크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기업에 단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더해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기대다. 일본은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가사나 육아 돌봄 등 무상노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분으로, 미국·노르웨이의 4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던 부모의 야근 면제권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아나 간병 휴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아는 분석했다.

'방콕의 봄' 오나...태국 전진당 부상에 '국왕 모독죄' 폐지 주목

지난 14일(현지시간) 태국 총선에서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돌풍을 일으키며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오랫동안 태국에서 금기시된 '왕실 모독죄'와 군주제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타 림파라트 전진당 대표는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형법 112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는 태국 왕실을 모욕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을 받게 한다. 피타 대표는 "군주제와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관계가 우려된다"며 "의회를 통해 성숙한, 투명성, 군주제와 대중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왕실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70년 넘게 존경받았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사망하고 2016년 마하 와치탈롱콘(라마 10세) 국왕이 즉위한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 마하 와치탈롱콘 국왕은 400억 달러 이상의 왕실 자산을 사유화하고 일부 군대를 직접 지휘해 논란이 됐다.

2020년 수만명이 참여해 빨라웃 쩌우차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 등을 요구한 시위 이후 군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됐다. 태국 당국은 당시 시위 이후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



17명을 포함해 223명 이상을 기소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대학생은 이번 총선에서 전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태국 왕실은 그간 군부 쿠데타와 군부 정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해왔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왕실은 공식적으로 비정치적이지만 왕은 국가 원수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12차례 이상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왕실은 군부 쿠데타를 승인함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 년 동안 태국 왕실과 군부는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군부는 태국 왕실의 진정한 수호자를 대중에게 자주 상기시켜 왔다"고 전했다.

수라쨌 방람쑈 쥘랄롱콘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방콕의 봄'으로 명명하며 "군 지도자들은 탱크에서 내려 자신감을 갖고 선거용 트럭에 올랐지만 반대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진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진당의 군주제 개혁 추진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전진당은 총선을 통해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확보했으나, 군부가 선출한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이 함께 총리를 선출하는 현 규칙에 따라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안정적으로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물가 폭등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97%로 인상 방침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97%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낼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해 기준금리가 91%였고, 수십 년간 온갖 종류의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비상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의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84%였다.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치였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08.8%로, 너 달 만에 지난해 물가의 두 배 이상이 올랐다.

FT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1991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은 고위 각료들과 물가 억제를 위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뒤 15일 비상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91%인 기준금리를 6% 포인트 더 인상하는 방안과 달러 대 페소 환율 관리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관료가 '기준금리 110% 인상'까지 내렸다고 전했다. 이 정도의 초강수를 뒤야 환율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매상들이 생활 필수품을 포함한 소비재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밖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AM 라디오여, 안녕... 美 자동차업체, 기능 삭제 잇따라

지난 100년간 매스 미디어의 한 축을 담당 한 AM(중파방송) 라디오가 자동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한 세기 동안 미국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AM 방송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반발이 강하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BMW와 폭스바겐, 일본의 마쓰다, 미국의 테슬라와 리비안, 스웨덴의 폴스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근 전기차 모델에 AM 라디오 기능을 넣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3대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포드는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차까지 모든 차량에서 AM 라디오를 제거했다.

이들이 AM 라디오를 없애는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와 맞지 않아서다. 전기차 엔진은 AM 방송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AM 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도 이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으로서 라디오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품질이 낮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점도 이유다.

다만 AM 라디오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대공황 당시 미국인의 어려움을 다정한 음성으로 위로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당', 역대 메이저리그 결승전 중계 등은 AM 라디오로 전해졌다. 제너럴모터스(GM)와 일본 도요타, 혼다는 신차에서 AM 라디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WP는 "대중매체가 등장한 첫 100년 동안 AM 라디오는 미국인의 삶을 만들었다"며 "자동차와 AM 라디오 한 세기간 로맨스가 급격한 기술 변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의 희생양이 돼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자동차 제조사의 AM라디오 제거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AM라디오가 퇴출당하면 지지층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주요 플랫폼을 잃게 된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AM 라디오가 기상이변 등 재난 상황에서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민 온 사람들에게 맞춤형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안전관리상의 기능을 강조한다. 외곽 지역의 경우 천지제비 등으로 전화와 인터넷이 중단될 때 AM 라디오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AM 라디오는 점차 퇴출당하는 모습이다. MBC와 SBS는 지난해 11월부터 AM 라디오 송출을 중단한 뒤 이달 8일 공식 종료했다. MBC는 1961년 12월부터, SBS는 1991년 3월부터 AM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시·재난용 방송을 위한 AM 라디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VIII. 구원론 (Soteriology 혹은 The Doctrine of Salvation) (4)

G.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2)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구원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종종 출 32:33을 인용한다. (출 32: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책은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의 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 일 것이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보면, 34-35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이 본문은 영생에 관한 문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구원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구절은 사울의 경우이다. (삼상 16:14)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이 곧 구원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건 이후의 일이다.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직분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왕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며, 사울이 자신의 구원을 잃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범죄 한 후 회개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 다윗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으로 왕의 직분과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왕직과 능력을 잃지 아니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결코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아니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진정한 성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으로 중생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H. 영화 (Glorification)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과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성도들의 천국에서의 삶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보다 더욱 큰 복된 삶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1) 타락전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상태는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 (it was “possible” for man “not to sin”) 이었고, 2) 인간의 타락 후에는 “non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 (not possible not to sin) 이며, 3) 예수민어 중생함을 받은 성도들은 “posse peccare, posse non peccare”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아니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it is “possible to sin, possible not to sin). 그러나 4)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non posse peccare”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not possible to sin/ unable

21:3-4). 부활한 영광스런 몸은 온전히 건강하며, 완숙한 아름다운 몸일 것이며, 병이나 상처가 없는 육신이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구속사역의 과정에서 남겨진 희생의 표시로서 매우 독특한 상처이다. 이 성경이 우리의 부활된 몸에도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매우 고유하고 독특하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가장 영광스런 몸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육신을 주신다고 한다.

(요일 3:2)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재림 하실때에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런 몸

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The covenant of grace) 세우셨다. 이 은혜의 언약의 씨앗이 창세기 3:14-15에 암시되어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사상이며, 임마누엘 사상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완전한 성취에 이른다.

이 연합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혹은 “주 안에서 (in the Lord)” 로 표현되며 주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확장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참여한 성도들은 현재에 구원을 소유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연합된 상태의 은혜속에 있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을 때 (에베소서 1:4, 9)와 이미 미래에 주어질 영화로운 상태의 은혜 (로마서 8:17; 고전 15장) 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주어

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는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연합과 비교할 수 있다” 주장한다 (John Murray, Redemption - Accomplished and Applied, chap. 9).

2)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적이다 (Spiritual). 그것은 비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영적이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다 (잠조, 요 14:18).

3)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다(롬 8:2).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신자의 생명 자체이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느니라”,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골 3:3, 4).

4)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다.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예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엡 1:4).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화롭게 됨으로, 종말론적 완성에 도달할 것을 분명한 확신으로 묘사한다 (롬 8:17; 고전 15:22-23).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지속적이면서 부서지지 않는 영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unbreakable permanence of their union with Chris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은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웨스트민스터 소년리 문답 37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설명한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made perfect in holiness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to Christ, do rest in their graves till the resurrection).

(“그리스도와 연합”은 대부분 웨스터민스트 신학교, 리처드 게핀, Richard B. Gaffin Jr, 교수의 강에서 요약했음)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to sin) 가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에서 삶, 곧 영화의 단계는 최고로 복된 상태이다.

1. 육신의 부활

성경은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친다. (고전 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전 4:14-16)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2. 부활한 육신의 모습

우리의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며, 병에 걸리지도 아니하는 육신이다 (고전 15:42-44, 49; 계

과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육신과 부활한 육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인가? 아니면 다른 몸일까?

현재의 육신 (지상의 몸)과 부활의 육신 (하늘의 몸)은 연속성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제자들이 알아 보았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다.

I.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자가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by the Holy Spirit and through faith)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범죄하여,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있

진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창세전의 예정, 유효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의 단계까지 다 포괄적이다.

1) “그리스도와 연합”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적이다(Mystical union).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며, 인간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영적인 지식이다 (엡 3:18-19).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함으로써 신비적일 뿐만 아니라, 친밀함(Intimacy)을 강조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성경은 관계적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다양한 본질을 설명한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요한복음 15:1-7); 머리와 몸의 다양한 부분(고전 12:12-27);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의 유전적 결속과 연대 (롬 5:12-19), 그리고 가장 심오한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의 연합이다 (요 17:20-23).

존 머리 (John Murray) 교수는 “피조물과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성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0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문화: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7:30 세례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8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일칸사 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토요영양예배: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833(C) 1000 E. Veale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성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8장 회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3)

교리 6 적용: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신다.

4) 성경은 오직 한 길, 바른 길을 가르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자신의 회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거나, "저는 어떤 신앙인들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거나, 혹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등이다. 그날에 이런 이유들은 당황스럽고 부끄럽게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은 먼저 추구해야 할 더 나은 나를 가지지 않았던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 (마 6:33). 그리고 여러분은 "경건은 법사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는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법인 성경은 여러분에게 한 길만 가르친다. 그 길은 바른 길이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길을 따랐다면 결코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마 22:12)라고 물으셨다. 말하자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즉 내 교회에 있는 너희는 어찌하여 거룩한 마음과 삶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는 어떤 대답을 했는가? 성경은 "그가 유구무언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여

러분의 재판이 하나님 앞과 온 세상 앞에서 반드시 열리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변명들이 마침내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5)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

회심하지 않은 죄인인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회심하지 않아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온 마음을 다해 회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만일 기록하게 되는 것이 나쁘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벧전 1:15-16; 레 20:7).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왜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했는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까?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죽음을 보다는 거룩하고 천상적인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이다."(민 23:10)라고 말한 발람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6) 회개할 때,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회심할 때 친구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쾌락거리인가? 여러분은 일단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롬 14:17)보다 어리석은 운동경기와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이 집과 토지와 먹고 마시는 것과 안락함과 명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리석은 세속성과 탐욕과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회심하지 않은 죄인인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회심하지 않아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온 마음을 다해 회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만일 기록하게 되는 것이 나쁘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벧전 1:15-16; 레 20:7).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왜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했는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까?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죽음을 보다는 거룩하고 천상적인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이다."(민 23:10)라고 말한 발람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회심할 때 친구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쾌락거리인가? 여러분은 일단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롬 14:17)보다 어리석은 운동경기와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이 집과 토지와 먹고 마시는 것과 안락함과 명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리석은 세속성과 탐욕과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죄악된 즐거움을 누리는 평생보다도 거룩한 상태에서 누리는 하루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 악인의 쾌락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미지광의 웃음과 같은 것이다.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즐거움을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다. 긁고 싶은 것은 병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기보다는 차라리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바랄 것이다.

여러분의 커다란 웃음은 웃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웃고 있는, 간지럼을 타고 있는 사람의 웃음과도 같은 웃음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과 성향을 주셔서, 지금까지를 계속 짓고 있는 것보다는 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다.

7) 질문과 답변:

* 질문: 회심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회심하기를 싫어하는 것인가? * 답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성적으로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뱀의 본성이 사람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2)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지, 성령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은 천국 기업의 확실성과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을 모른다. 그들은 비록 귀로 듣기는 하지만, 회심이 무엇인지, 거룩한 생각과 대화가 무엇인지 모른다.

(3) 자기가 이미 회심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회심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삶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가는 길에 들어서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기들은 이미 회개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

2023년 새해 첫 달, 우리는 한 아빠의 안타까운 절규를 들었습니다. 텍사스의 제프 영거(Jeff Younger)라는 쌍둥이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의 절절한 외침은, 이혼한 전 부인이 쌍둥이 아들 제임스(James)를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 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 엄마는 두 살 때부터 아들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여자아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본연의 아들이었지만, 엄마와 있을 때는 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의 요구대로 제임스를 여자 옷으로 갈아입히고, 남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아이 엄마는 열 살이 된 제임스를 성전환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LA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SB 107)'이 아들을 화학적 거세와 호르몬 치료에 의해 영구적인 '딸'로 만드는 합법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나는 아들을 단지 소년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다"라고 외쳤지만, 세상은 그의 편이 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소년의 자연스러운 생태적 성(性)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바꿔 놓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말았습니다.

연제부터가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국제적 정점이 되고 정책이 되어 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고난 생태적 성(性)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소위 '트랜스젠더 성역법'까지 탄생시키며 다음 세대의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질서와 법칙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무기로 작용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유엔기구 중 교육·문화 전담 기구인 자치하는 유네스코가 바로 이런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을 '글로벌 교육 2030' 의제로 내세워 세계적 추세의 성교육으로 보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 개정판으로 펴낸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이른바 '국제 성교육 표준 지침서'라고 불릴 정도로 연령별 세밀한 교육의 목표와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탄탄하게 짜여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는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둘러싼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의 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CSE)이 커리큘럼의 근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접한 부모들은 "5세부터 18세 아이에게 성을 쾌락화한다"는 지적을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엔기관이 모여 있는 스위스와 독일은 정작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친동성애적 입장과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는 교육이 어떻게 성교육의 주류로 정설이 될 수 있는지, 효과나 연구도 비판적인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성교육,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유네스코의 성교육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이 교육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필자가 만든 좋아성(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 BSE: Biblical Sex Education)은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끊어버리는 잘못된 성교육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다음 세대가 성(性)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귀한 진리인 성경에서 성(性)의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교사가 전수해야 할 진정한 성교육입니다.

필자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교육, 성평등, 동의교육, 섹슈얼리티 등 5가지 핵심 성교육'을 대체할 '성경적 성 가치관'을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즉 '창조론적 감수성, 나뭇 교육, 성책임, 순종 교육, 성진리' 등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퍼뜨려 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주재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배울 수 있도록 12가지 성품을 제시하고 '좋아성: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性) 지키기'라는 커리큘럼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지난 18년의 열매인, 좋은나무성품학교의 아름다운 성품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느끼는 진리는 하나님의 능동하심과 위대하심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좋아성(BSE)'을 통해 이 시대의 부모와 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당당히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꺾이지 않는 마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16강 진출이라는 목표...

상을 깨고 포르투갈을 2대 1로 승리하여 16강에 진출합니다. 승리한 한국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야 할 것은 마음이고,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이 말하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이 말하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가노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기독교적인 글들이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yosupbois@gmail.com

퀵복 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 재정정보 무료 강좌



퀵복 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 재정정보 무료 강좌에서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퀵복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및 그랜트 신청을 위한 재정정보 무료 강좌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3일(토) 낮 12시에 은혜한

인교회 미라클 센터 MC 310 강의실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가 강사로 참여하여 퀵복 온라인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의 은행 구좌와 연동하여 거래내역이 자동 연결하여 손쉽게 수입과 지

출내역을 정리하고 재정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쳤다. 구 교수는 "퀵복 온라인 버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즈니스 오너가 스스로 장부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비즈니스 오너와 어카운트 담당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위로가 델러스에!

(1면에서 계속)

존 마크 카튼 담임목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해'부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 전하며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더 나은 곳,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아이들을, 더 나은 가정을 갈망한다고 믿는다."

카튼 목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델러스 총기 난사 범인은 쇼핑몰에 있던 당시 경찰관에게 해 살해했다. AP통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33세 남성인 전직 보안 요원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인 것으로 보도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델러스 교외 앨런시에 있는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프롬'이라고 부르는 졸업 파티 시즌을 앞두고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시민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휘두른 용의자는 범행 당시 극우주의를 상징하는 패치가 달린 조끼 등을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시아가 'RWDS'라는 문구가 적힌 패치가 달린 조끼를 입은 모습이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에 포착됐다. 'Right Wing Death Squad(우익 암살단)'라는 뜻으로, 극우주의자 및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문구다.

용의자는 러시아 기반 SNS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BBC 뉴스가 확인한 결과 하켄크로이츠나 SS(나치 친위대) 문신 사진 등 나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게시물이 게재돼 있었으며, 장황한 어조로 폭력에 대해 적어 놓은 메시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용의자는 지난날 중순까

지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사진도 올려졌다.

한편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2008년 6월 미 육군에 입대했으나,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초기 임명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3개월 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자 수를 공개적으로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201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을 통해 "AR-15 스타일의 공격용 무기와 전술 장비로 무장한 총격범이 쇼핑몰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규탄했다.

미주 연세 개교 138주년 조찬기도회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는 8일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개교 138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영선 목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믿음의 본질'(히11: 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권영대 목사 지휘로 여성합창단의 특별찬양과 미주총동문회 고동호 부회장의 환영사, 남가주동문회 이종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문들을 위해 천진석 목사(살림교회 담임목사), 한인커뮤니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백은학 장로(미주성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회장), 우리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신명균 목사(전 OC시민권자협회 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4)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성장하도록 돕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의 정욕과 열정과 탐욕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인해야 할지, 어떻게 그밖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5) 악한 친구의 영향 때문이다 경건한 생활에 대해 비판하는 그들의 삶을 듣고 경건한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 자들의 기세를 그렇게 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으로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경건한 삶을 계속해 나간다.

(6) 원수 사탄의 공작 때문이다 미묘하고 악한 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요한 과업이다. 그 원수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이것은 불필요하게 야만분석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게 한다.

younsuklee@hotmail.com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Table with 3 columns: 날짜, 주제, 강사. Includes topics like 불안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증, 약물 중독, 강박 장애, 죽음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워크샵 참석 배네티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지역 목회자 부부 초청 블레싱의 시간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현직 목사회원 부부를 대상으로 5월 21일(주일) 오후 6시 하나임교회에서 목회자부부 초청 블레싱의 시간을 연다. 찬양과 간증 및 사모 위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회장 홍인석 목사 201-815-9223

뉴욕장로성가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 제17회 정기연주회가 6월 4일(주일) 오후 6시30분에 프라미스코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로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새생명 선교회, 디나눔하우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단장 전병삼 장로 914-703-0447, 총무 배삼규 장로 201-214-9254

영생장학회, 2023년 장학생 선발 신청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소속 영생장학회에서 2023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Emerging Scholarship 미국 내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예정자, \$2,000 △Timothy Scholarship 대학원 재학중인 Pastor's or Missionary Kids (PK or MK), \$2,000 △Open Scholarship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일반 한인 학생으로서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학생, \$1,000을 전달한다. 신청마감은 6월12일까지

▲문의: 염태선 집사, 송홍창 집사 info@yspcscholarship.org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메시아 여름학교 등록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2023년도 메시아 여름학교를 6월 26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5주간 개최한다. 대상은 4세부터 7학년까지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등록마감은 5월 26일(금)까지.

▲문의: 나미영 사모, 703-945-2357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CHALLENGE 2023"

"CHALLENGE 2023 Youth Retreat"를 주제로 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6월25일(주일)-28일(수)까지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사무엘 목사(한우리교회 EM)를 강사로 개최된다. 대상: 6th - 12th Grade, 등록비: \$ 250

▲문의: 안근준 목사: 646-388-0886, keunjoonan@gmail.com

ACE 성령집회 "LIVING WATER"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단체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에서는 지난 2차례의 준비기도회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집회로 아래와 같이 모인다. 일시: 5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뉴욕 천성장로교회(담임 신두현 목사) 58-30 193rd St, Queens, NY 11365

▲문의: ACE 집회사역위원회 정병길 목사 ace110next@gmail.com / 989-971-2877

뉴저지 교협회관 기금마련 골프대회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회관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6월 13일(화) 오후12시에 Berkshire Valley Golf Course에서 샷건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153(점심, 저녁식사 포함)이며 신청마감은 5월 31일 오후5시이다.

▲문의: 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201-647-7766, 대회운영장 홍성철 집사 201-522-5281

뉴욕생명열매교회, 설교 글쓰기 세미나

"들려지지 않는 설교, 설교자 책임"

뉴욕생명열매교회(담임 김경태 목사)가 주최하는 설교 글쓰기 세미나가 5월15일(월)부터 5월16일(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하늘소망교회(담임 장완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강사 김도인 목사(아트설교 연구원대표, 글과길 출판사 대표)는 '글쓰기에도 철학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법을 통해 설교하라, 설교의 낯선 서론과 들리는 적용, 설교 글쓰기의 10가지 요소, 책 쓰기가 브랜딩 만들기'의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도인 목사는 "설교자는 글쟁이어야 한다"며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설교에 삶과 영성이 묻어나오니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목사(아트설교연구원부대표, 대코롬연구소 소장)는 '설교에 대한 이해, 설교자를 위한 목상과 실제 (창조적

인 목상법), 설교구성의 실제'의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영 목사는 "들려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설교이므로 성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또한 "설교 연습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며 설교 연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시작되므로 설교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인 목사의 대표작은 '설교는 글쓰기다' '설교자,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글쓰기 특강' 등이 있으며, 이재영 목사 저서로는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동행의 행복' '희망도 습관이다'가 있다. (홍현숙 기자)



설교 글쓰기 세미나 기념촬영을 했다



목회자 세미나 후 최호섭 목사와 유재명 목사가 기념촬영을 했다

작은교회연구소, 유재명 목사 세미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뉴욕영락교회(최호섭 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를 강

사로 초청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부흥성회를 열었다. 8일(월)에는 최호섭 목사가 개소한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유재명 목사는 처음에는 교회의 절대가치, 교회가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를 나누었다. 이어 유 목사는 세미나를 정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마태복음 16:13-20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며 "이렇게 귀한 교회를 목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끊임없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다.

이번 세미나는 두번째 초청 세미나로 유재명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집회가 중단되었다가 이번 뉴욕집회를 시작으로 애틀랜타와 남가주에서 연속 집회를 이어간다. (정리: 김재상 기자)



체육대회 후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제15회 체육대회 뉴욕 우승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 주최로 열려

미동부 5개주(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워싱턴지역) 한인목사회 제15회 체육대회가 5월 15일(월)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회장 김찬영 목사) 주최로 열렸다.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는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지난해에 뉴저지에서 재개된 바 있다.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 팀은 장거리인 경우에 하루 앞서 주일 오후 5시에 대형 버스로 출발하여 체육대회가 열리는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한 후에 체육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비 전액을 목사회가 후원했다. 경기는 축구, 배구, 족구, 계주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뉴저지 목사회가 첫 종합우승을 했지만, 올해는 2024년 내년 대회를 호스트하는 뉴욕목사회 팀이 우승했다. 뉴욕목사회 팀은 축구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으며, 족구도 전승으로 우승했다. 배구는 메릴랜드에게 져서 준우승, 릴레이는 2등을 하여서 총점 28점을 얻어서 종합 우승을 하여 종합 우승기를 가져왔다.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회장 김찬영 목사)가 주관한 대회는 오전 개최예배, 실내운동, 점심은 nZone에서, 오후 야외 운동은 ArrowHead Park에서 열렸으며, 폐회예배 및 시상식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1부 개최예배는 사회 양경욱 목사(총무), 대표기도 신동영 목사(서기), 대회선포 및 환영사 김찬영 목사, 말씀봉독 박희숙 목사(회계), 말씀 정인량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 선수선서 박정호 목사(필라목사회 회장), 우승기 반납 홍인석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축사 심대식 목사(워싱턴교협 회장), 경기운영 안내 문정주 목사(위원장), 축도 김성도 목사(위원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폐회예배는 사회 문정주 목사(위원장), 대표기도 이영숙 목사(메릴랜드목사회 회장), 시상식 대회장, 2024년 행사 초청 김홍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축도 이택래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창단12주년 기념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2주년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6월18일에 링컨센터 찬양제

공연수익금으로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선교사들 지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 권사)은 5월 11일(목) 오전 11시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에서 창단 1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링컨센터 찬양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에 이은 설명회를 통해 기도 행사위원장 유성종 장로, 무용단 예배무용 시범, 링컨센터 찬양제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단장 윤다이나나 권사와 무용감독 최윤자 권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은 12주년을 맞아 "천지창조"라는 주제로 6월 18일(주일) 오후 6

시에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수익금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즉 뉴욕과 뉴저지미알장 애선양제를 소개하는 브라질과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튀르키예 지진피해 어린이(GCF), 볼리비아 선교사 등을 돕는다. 공연 목적은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과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큰 영광의 찬양제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예배 무용은 몸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강조했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은 무용감독 최윤자 권사가 2011년 시작했다. 최 권사는 이에 앞서 1997년에 한국에서 필그림무용선교단을 창단하고 활동을 한 바 있다. 무용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295회의 몸으로 찬양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	---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KCMUSA,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

‘본토 50개 주로 퍼진 한인들의 120년 역사담’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재미한인기독교재단(이하 KCMUSA, 이사장 민종기 목사)이 주최한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과 KCMUSA 창립 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를 5월 9일 오전 11시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미주한인교회사 집필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각 기관 내빈들, 한인정치인 및 보좌관들이 참석해 미주한인교회사 발간을 축하했다. 특별히 이

책자의 파트 3 ‘미 50개 주 최초 교회사’에 집필자로 참여한 김동영 목사(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콜롬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은퇴)와 윤성열 목사(뉴멕시코 소재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그리고 정은표 목사(아이다호 소재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은퇴)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종일관 축제의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조명한 목사(미주한인교회사 출판위원장)는 “미

주한인이민 역사가 벌써 120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의 세대교체로 인해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며 “누군가는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민 12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한인교회사를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명한 목사 사죄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는 민종기 목사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신 32: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이민 120 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과 집필 작업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903년 102명이 왔는데 반수가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는 커뮤니티센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을 품는 은혜를 얻게 됐다”며 “이 세계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진 민족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곳에 모인 한인교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석정희 시인이 미주한인교회사 발행인인故 박희민 목사 추모시를 낭송했으며 조명한 목사가 미주한인교회사 출판동기 및 과정 설명과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 명예교수)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와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서평을 했다. 이날 예배는 김광진 목사(감리교 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미주한인교회사는 하와이에서 이민을 시작, 본토 50개 주로 퍼진 한인들의 120년 역사를 담아냈으며, 1903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한인교회 역사를 872페이지에 담아냈다. 대표 집필은 김흥기 박사와 조명한 목사가 참여했으며, 그 외 80여 명의 필자가 교회사 집필에 참여했다. 또한 한인교회 소속 26개 교단 관계자 역시 교단 역사 집필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교회음악사, 한인기독교문학사, 한인 선교 역사, 한인기독교방송사, 한인기독교론사 등이 담겨있다. 한편 KCMUSA는 하버드, 예일대, UCLA, USC 등 전국 약 40개 대학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 또는 아시아센터에 미주한인교회사를 기증했다. 이를 통해 초기 한인교회사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놀라게 성장한 한인교회사를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고 박희민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KPCA 총회장으로 열렸다

KPCA 총회장으로 진행된 고 박희민 목사 장례식

“끝까지 쓰임 받고,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목회자”

故 박희민 목사 장례예배가 지난 12일(금) 낮 12시 가정장의사에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가졌다. 전 총회장 박성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총회장 박상근 목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 4: 7-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LA 목사중앙단(지휘 서문옥 목사)이 조가를 불렀으며, 박성민 목사(뉴호프선교회 대표), 민종기 목사(KCMUSA 신임 이사장), 고 박희민 목사의 장남 박동진 장로가 추모사를 전했다. 또한 고 박희민 목사의 친형 박희소 목사가 유가족을 대표해서 추모객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30분 헐리웃 포레스트 문에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집례로 하관예배가 열렸다. 한편 총회장 하루 전인 11일(목) 오전 11시에는 고인이 16여년 시무했던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다. 박은성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김정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기도 후에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가 ‘천국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딤후 4:6-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박 목사님은 은퇴 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목회자였으며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목회자였다고 끝까지 쓰임 받으셨던 목회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랜 절친이자 후배인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강용훈 목사(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추모사를 했으며 이정옥 장로(기쁜우리교회)가 추모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고 박희민 목사의 친형이자 뉴욕 동부교회 원로인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정신건강국 ‘정신건강 및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좌), 한인정신건강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수잔 정 박사

LA정신건강국, ‘정신건강 및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 개최

한인 정신건강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세미나 열어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은 9일, ‘코리안타운 정신건강 센터’와 공동으로 ‘정신건강 및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엘에이 한인타운 6가와 버몬트에 있는 LACDMH 본부에서 열렸으며 한인교 라티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주민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상담심리학 교수, 한영호 목사(나눔선교회 대표), 나승렬 목사(Salt 4 Co-Chair, 약속의 교회 담임), 양에스터 박사(미주장신 가정상담학 교수)등이다. 첫 강사로 단에 오른 수잔 정 박사는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의와 원인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안상태가 극도로 심해지는 것이 공황장애이며 공황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과 사춘기쯤에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불안장애’, ‘선택적 공포증’,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불안 장애에 대해 상세히 강의 한 뒤 치료와 약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세미나 후에는 한인정신건강국을 섬기는 스태프들과 1대1 상담시간도 갖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 세미나는 19일(금) 10시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이성자 기자>

한편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한인정신건강센터/대표 김요철)는 이민한인가정들의 정신건강과 상담 등을 위한 ‘한인정신건강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12일(금) 오전 10시 American West University(1818 S. Western Ave)에서 수잔 정 박사(카이저 정신과 은퇴 닥터)의 ‘불안장애’에 관한 강의로 막을 올린 본 세미나는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강사는 수잔 정 박사, 김경준 박사(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음악회

“음악회는 지역사회 문화 사역에 큰 교두보 역할 감당”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제28회 학생음악회가 12일(금) 오후 7시30분 지퍼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연주회가 벌써 28회가 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본교 음악과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주회가 중단된 3년을 제외하고도 쉽지가 않았던 14년 동안 매 학기 연주회를 가졌다”며 “학생 연주회가 매년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흥미를 더해왔다. 이번 음악회는 ‘협주곡 갈라 콘서트(Concerto Gala Concert)’라는 제목으로 협주곡으로만 프로그램을 장식한 데서 그 특이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교 음악과가 매년 이러한 독특한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음악 문화 사역을 섬기는 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실로 오늘날 지역 사회의 음악 문화 그리고 교회음악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

음에 더 큰 감사를 갖게 된다. 본 대학의 음악학과가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북음을 향한 다양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사역자들을 계속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미국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존 윌리엄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화 ‘윈들러리스트’를 시작으로 바 이올린 3대 협주곡 중 하나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첼로 협주곡의 대표작인 것 중 하나인 프랑크 작곡가 라로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가장 대표적인 베토벤의 5번 피아노협주곡 ‘황제’,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그리고 보컬이 어우러지는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로 마무리 되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음악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는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를 오는 6월20일부터 미주평안교회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상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문의: (213)480-0691

은혜한인교회 고 김광신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감사예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고 김광신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감사예배가 25일(목) 오후 7시 친교실에서 열린다. ▲ 문의: (562)355-3088

주님의영광교회 유재명 목사 초청부흥집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담임) 초청 부흥집회를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라는 주제로 갖는다. 일정은 19일(금) 오후 7시30분, 2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1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 ▲ 문의: (213)749-6700

동요부르기대회

미주동요사랑회(회장 조현주) 주최 제18회 동요부르기대회가 20일(토) 오후 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23)899-9353, (213)820-6226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창립42주년 감사주일예배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창립42주년 감사주일예배가 21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장로, 권사 추임예배는 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972)258-0991

가정의 달 가정 회복 세미나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자녀와의 소통법’과 ‘중독의 원인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 가정 회복 세미나를 21일(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캐롤튼 캠퍼스 비전 채플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North Community Church) ▲문의: 노정배 목사 (682)597-5543

선한청지기교회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가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말씀축제의 강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9일(금) 오후 8시, 20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 21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626)913-6611

오대식 목사 초청 부흥집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오대식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 문의: (858)278-3210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제 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개최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 6월19일 - 21일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주최하는 제 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6월19일(월)부터 21일(수) 오후까지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진행된다. 본 수련회는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2016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진행돼 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연기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됐다. 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시기에 영적 도전을 주는 수련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상황, 학생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며 남가주 교회들을 섬기 고자 연합수련회를 초교파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한다. 본 수련회 등록 마감은 5월 26일(금)까지이며 참가대상은 한인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23년 8월 기준)이며 선착순 100명. 단 교회당 등록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문 광고의 QR코드를 사용해 등록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자세한 것은 951-928-4415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백석대 혁신융합학부, '아프리카 아동돕기' 모금액 굿네이버스 기부

모금활동을 교과목으로 운영, 사회 문제 탐구의 기회 제공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혁신융합학부 소셜비즈니스융합전공 재학생 20명이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에 135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석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행사는 환경오염 관련 배출량은

없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식수 부족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모금했으며, 2023년 1학기 전공과목인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혁신융합학부 조성우 교수는

“2015년 네팔 대지진 참사를 시작으로 대학은 ‘모금활동’을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을 기획한 혁신융합학부 소셜비즈니스전공 4학년 김주환(27)씨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기후위기에 직면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모금을 해보기로 했다”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백석대가 2015년부터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금활동은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품 지원 △6.25 참전용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실종아동찾기 △산난방비 취약계층 돕기 등이며 약 1200만원을 사회구조단체에 기부했다.



교회는 디지털로, 예배당은 지역사회 공간으로 '하이브리드' 하라

한국기독교학회·장신대, 뉴노멀시대 목회 세미나 개최

엔데믹 시대 목회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교회가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교회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동력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를 떠올리면 된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접목할 인프라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두루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곳에 장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 진정성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핀다.

하이브리드 목회의 필요성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변화된 성도들의 기호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바나그룹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Z세

대의 약 40%가 코로나 이후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목회에 하이브리드를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2021년 12월 교회면 된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접목할 인프라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두루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곳에 장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 진정성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핀다.

하이브리드 목회의 필요성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변화된 성도들의 기호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바나그룹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Z세대의 약 40%가 코로나 이후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목회에 하이브리드를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2021년 12월 교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등 하이브리드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이브리드 교회 소그룹의 핵심으로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뤄주는 것을 꼽았다. 특히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을 소그룹에 초대할 때 참여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는 것을 꼽았다. 특히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을 소그룹에 초대할 때 참여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는 것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로 기존 교회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는 흥성 결성감리교회(송경섭 목사), 교회 주방 공간을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에 활용하는 서울 강서구 사랑의교회(최석진 목사), 지자체와 함께 50·60대 남성들을 위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벌이는 서울 관악구 친구들교회(배홍일 목사) 등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사마리안퍼스코리아, 한국기독교실업인회 MOU체결

긴급재난대응 후원, 사회공헌·복음 전도 활동 등에 공동 협력기로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구 사마리안퍼스코리아(크리스 위크스 대표)가 16일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김영구 중앙회장)와 업무협약(자진)을 맺고 긴급재난대응 후원 등 사회공헌·복음 전도 활동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후 기부 및 봉사 활동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전략적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대응 후원 활동뿐만 아니라 연 1회 사마리안퍼스코리아가 진행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CC) 선물상자'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양 기관의 협력 선교사역에 관한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사마리안퍼스가 국제 재난 대응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CBMC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파트너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기관이 시너지를 발휘해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준비해나갈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복 한국CBMC 대외협력 위원장은 “지구촌 곳곳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재난당한 곳을 찾아다니며 실질적인 구호·봉사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안퍼스의 사역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준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명이다. CBMC

가 전도서 11장 1절을 올해 주제 말씀으로 삼은 것처럼 CBMC 회원들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 협력해 지구촌 곳곳의 재난당한 곳에 자신의 떡을 던져지는, 복음과 예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을 둔 크리스천 사업가 모임이다. 사마리안퍼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사마리안퍼스(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한국 지부다.



50년의 '선교행진' 내년 한국서 4차 로잔대회 열린다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한국교회의 협력 요청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대회가 내년 회년을 맞아 한국에서 4차 대회로 열린다. 로잔운동은 89년 2차 대회(마닐라)와 2010년 3차 대회

(케이프타운)를 통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한 선교 신학을 구축하며 '선교행진'의 역사를 써왔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복음주

의자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되고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로잔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서울 샬롱홀에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교단 지도자 모임을 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했다. 대회는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는 주제로 내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준비위는 “222개국에서 선발된 5000명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석자 5000여명, 운영진 1000명 등 1만5000여명이 모이는 대회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재

훈 은누리교회 목사는 로잔대회의 취지에 대해 “로잔대회가 회년을 맞아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그동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로잔운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났다”며 “국제로잔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과거 대회와 달리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준비위는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성경강해와 900개 소그룹 토의, 25개 이슈 그룹 토론,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7일간 성경강해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이슈 그룹에서는 인공지능(AI), 미전도종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6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연대해 진행 된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폐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은 그 어떤 재난 지역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하였다. 튀르키예 정부가 유일하게 허락한 개신교회당 안디옥교회의 무너진 잔해는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처참한 주위의 환경과 똑같이 무너진 잔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번의 강력한 지진은 단 21초만에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마치 바닷가 모래위에 성을 쌓다가 물이 들어오면 무너져버린 흔적을 바라보아야 하듯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거나, 심히 파손되어 사람들은 대피하고 빈 건물들만 쓸쓸하게 늘어서 있었다. 만일에 주위의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십자가를 단 안디옥교회의 건물만 무사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의 모든 건물처럼 안디옥교회당도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다.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모슬렘 가옥들이나 기독교 교회당이나 상가나 할 것 없이 오래되고 약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무너지고, 최근 강화된 건축규정을 지켜 강하게 지어진 건물들만 일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당 위층에서 거주하던 사역자 가정들 주님은 일년 전에 이사를 나오게 하셔서 온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선교사 가정도 일반 가정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야 하며, 계절에 필요한 옷가지들 입어야 하고, 사역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안전한 주택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선교사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이 희생만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란다. 안바울 사역자 가정은 10년이 넘게 겨울이면 난방이 잘 안되는 춥고 불편한 오래된 교회당 건물에 거주하

였다. 그들은 일년 전에 큰 결단을 하여 가까운 곳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어렵고 힘들어도 재정도 절약할 수 있게 교회 건물에서 살자는 남편과 너무 춥고 힘들어 이사를 하고 싶다는 아내의 대화를 상상해 보라. 마치 선교지에서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약한 부인사역자의 모습이었겠나. 결국 집을 이사하고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나

함께 떠오르게 된다.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유형교회의 환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유형의 교회가 무너져버린 환경 가운데서 매주 폐허가 된 교회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바울사역자와 몇명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 많은 타지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만한 교회당의 재건축은 이곳에서 아직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십 만 채 이상

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 단순한 목양이 아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 가정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기회에 더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재해복구 현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건설과 수송, 자재공급 등 전문분야에서 도

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것은 비자의 문제도 있고, 공개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지지만 뿌려진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거두어들이는 공동체로의 모임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일은 아니다. 전도를 하고 성도의 삶에 변화를 보기까지 십년이 상을 완전히 종이 되어 접어야 한다고 목회를 해온 사역자는 말한다. 환경이 마음껏 복음을 제시할 수 도 없는 곳에서 단순한 복음제시 자체도 엄청난 일이지만, 구도자를 찾아내서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 지도록 눈물의 양육을 위해 살을 드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무모하리 만치 과감한 단기선교로 잘 알려진 단체에서 가장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그곳에 파송하고 사역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전도 노력 이후에 교회로 세워지는 예가 없다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공동거주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다. 흩어진 성도들이 들어와 함께 지내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여기에는 타종교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한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거주자들은 농업에 종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튼 기존의 성도들을 모으려는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최소한 같은 나라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무슨 소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지역, 사역자의 숫자가 모든 현지 성도의 숫자보다 많았던 나라, 이제 조금 현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밖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교회의 사역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않는지, 자주 만나는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 가정들은 더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생각하며 새로운 거주지가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을지 모른다. 후원하는 교회에서 혹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후원자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미리 현실적이고 적당한 생활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해 줘야한다.

교회당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는 교회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어떤 교회라는 이미지는 그 교회당이

의 집이 완전히 부서졌고, 이 십만채 이상에서 거주할 수 없는 이재민이 생겼다. 거의 모든 도시가 비어 있다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텐트들과 임시막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재건할 계획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교회당의 재건은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전기와 물과 같이 성도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근처의 세 도시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멀리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안바울 사역자가 힘을 잃지 않

을 수 있는 평신도 전문인들과 사업가들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안바울 사역자는 이미 체류비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 노력은 함께 해야 한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수고를 한 사람은 그동안 삶을 바쳐 목회를 해온 사역자 자신이지만, 누군가가 이미 뿌렸던 씨앗들이 모여서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제 지진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도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튀르키예에는 많은 한인 사역자들이 있으나 막상 교회를 맡아 목회를

고 한다. 단순한 복음전도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이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모이는 사역을 위한 화려하지 않지만, 뼈를 깎고 눈물의 강을 건너는 노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이다.

지진피해 상황은 이제 긴급구조와 구호의 단계를 벗어나 복구의 단계로 내딛고 있다. 흩어져가는 성도들 뿐 아니라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장기 거주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텐트를 가설하고 머물고 있다가 조금 더 튼튼한 컨테이너 주거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보다 더 오래 사용

지진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튀르키예의 아픈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이해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중장기 복구의 기간에도 우리의 관심을 함께 기울이자. 교회당의 재건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마음을 함께 하며 현장의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자. 폐허 속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누기를 기대하며 폐허 속에 피어나는 소망을 바라본다.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26강(신명기 1-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4)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신 8:1).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심입니다(신 8:2,16).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며 그들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심이었습다(신 8:3).

광야에서의 삶은 절대로 낙

낙함,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신 8:4,5).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광야'는 '애굽'보다 나은 곳이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로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세상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광야'보다 '애굽'이 좋은 곳이었습다. 그와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은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신 8:7-9).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땅이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신 8:10-14).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신 8:17).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신 8:15,16,18).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멸망시키셨던 민족들 같이 그들도 멸망시킬 것입니다(신 8:19,20).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들,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누구도 당하기 힘든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 사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신 9:1-3).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공의도 그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입니다(신 9:4-6,13).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사건들을 '송아지 우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끄집어내며 되새겨 줍니다(신 9:7-10:5).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 왔습다(신 9:24). 이때 모세는 '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신 9:27)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와같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면 멸하실 일밖에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시 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어야만하는 우리 대신 종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율법의 역할 (롬7:1-4) 찬 192장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함으로 복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의 거룩에 이름에 실패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2-3)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

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그의 죽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4)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취하심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그와 교통하는 자리에 선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인으로 삽니다.

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롬7:5-6) 찬 506장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 율법을 지키므로 섬기지 못합니다. (5)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발견된 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정욕의 약함을 발견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을 앞으로서만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가리킵

니다. 둘째,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길 곧,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십니다. 새 영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수 거울같은 율법 (롬7:7-9) 찬 204장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째, 본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의 근본은 정의(righteousness)와 긍휼(mercy)과 믿음(faithfulness)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마 23:23)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언제나 바른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탐심을

보이니 탐심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모든 행동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성령으로 알려진 우리의 실상은 처절한 죄인입니다. 셋째, 죄인임을 알 때 회개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믿음의 참된 길을 걸읍시다.

목 율법의 본질 (롬7:9-12) 찬 422장

바울은 율법의 본질을 세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만이 의이고 모든 성품이 이 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기준을 율법에 계시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율법을 행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만큼 자라며 그가 주신 언약

의 목적지입니다. 완성된 언약의 삶은 거룩한 삶 곧, 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창조로 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선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 본질을 상실한 죄인은 율법의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로 복음 안에서 누립시다.

금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롬7:13-15) 찬 189장

구원을 위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첫째,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차적 사역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의 깨달음과 적용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됩니다. 그 때 성령은 율법의 기준을 보이심으로 그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 회개와 참 믿음을 갖게 합니다. (13-14) 율법을 성령이 사용하실 때 죄인

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고 소스라치게 회개시키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이끄는 율법의 사역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율법은 기준만 제시할 뿐 아니라 거룩과 선을 알게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14-15)

토 바울의 영적 갈등 (롬7:16-20) 찬 190장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은 모든 신자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그 갈등 속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첫째, 그는 육의 요구를 보았습니다. (16-17) 거듭난 신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육의 강한 욕구 곧, 죄를 짓는 욕구입니다. 둘째, 그는 영의 요구를 보았습니다. 육과 맞서 더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새 영의 욕구를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 곧, 성령의 소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셋째, 죄를 짓게 하는 육의 부패성을 보았습니다. 육 혹은, 육신으로 표현된 그 부패성이 교묘하게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눈뜨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넘겨워진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누립시다.

교회음악 이야기(34)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케이디 데이비스 그리고 찬양 “어머니의 기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isses from Kathy)의 저자 케이디 데이비스(Kaifeng Davis Majors, 1989-)가 이 책을 출간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7년 두 번째 책 “그래도 소망 (Daring to Hope)”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더 성숙하여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간다의 진자(Jinja, Uganda)라는 곳에서 약관 18살부터 선교를 시작한 케이디는 1989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나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케이디는 현지에서 13명을 입양했고 지난 2015년 현지인 베니에 메이저스(Bennie Majors)와 결혼을 해서 2명의 아이를 낳아 모두 15명의 자녀를 둔 올해 34살이 되는 엄마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아마지마 프라이어리 학교(Amazima Primary School)를 운영하며 선교사로 현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15명의 엄마 케이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성숙하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성경 속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불러 오게 합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렵게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삼상 2:1-10) 속에 그의 성숙함을 봅니다. 어머니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삼상 2:6-7) 케이디,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한국의 오병희 작곡가가 곡을 쓴 “어머니의 기도”를 찬양하며 케이디가, 그리고 한나가 보여준 성숙한 어머니상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 주신 축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 참으며 견디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 그리고 자녀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게 해 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찬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디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보면 그가 정의하는 “엄마”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입니다. 엄마는 다급할 때 외치는 이름이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입양한 한 “스코비아”가 그를 엄마라고 부를 때 갖게 된 엄마에 대한 정의입니다. 위에서 케이디가 갖게 된 어머니의 심정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사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점이라곤 없다. 단 하나가 있다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 그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디가 쓴 두 번째 책 “그래도 소망”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 그것들을 통해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과정의 실상을 진술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던 자기 내면을 털어놓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성숙한 어머니 모습으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큰 공감이 되고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케이디의 고백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하고 요란한 방법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 드리려고 애쓰던 내게 하나님은 그분이 작은 일상에서도 알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정성껏 지어 상에 올린 밥 한 그릇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은 다 고만고만하다. 특별히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고통을 덜어 주거나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힘들고 고인정해 주는 정도다.” 케이디의 이러한 고백들이 이 시대 자녀들이 무엇에든지 일몰이 되어야 하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녀가 더 월등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뜨리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며 그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의 시작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발견되는 열등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 - 창3:5).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보면 열등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계속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를 인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기 멸시를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야 한다는 권력 속에서 갖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면 능히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분야마저 실패를 거듭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보는 탁월함이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여 있는 모습을 보며 탁월해졌다고 하나님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담아 모든 조건에서(in all circumstances) 기도를 통해 표현(expressing)하고 삶에서 드러내고(showing) 만들어 갈 때(making)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이디의 고백,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며 발견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마 이 시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마음에 찾아와 자녀들을 향해 이러한 기도를 주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iyoon@wm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글로벌대학원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bcgo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캠퍼드빌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15-11:30 영아예배: 오전 9:30(월-금), 오전 9:30(토) 일요일예배: 오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a.org, www.b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h3>세계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장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월-토)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www.wmccca.org, www.missionchurch3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3>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타지역원</h3>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합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목대상: 1. 영성사역자 2. 교회 결집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istafamily.org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세백기도회: 365일 24시간 온 Tel: (714) 446-6200, www.grocei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7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E.M. 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코 펴기 우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본 교회에서 함께 지내며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SEED 선교 단체의 아프리카&유럽지역 선교대회와 미국 방문 등 4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우간다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미국에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반겨주시고, 우간다에 돌아와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반갑다고 달려와 안아주니 기쁘고, 과분한 대접을 받게 하셔서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격하게 반기는 한편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규칙과 신앙 그리고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 반가워하는 정도가 덜한 것 같아 속으로 미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떠나는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고, 오고가는 여정에서 나이도 숨길 수 없어 결코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자주 타실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새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학교가 무사히 잘 운영되도록 지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저희가 떠난 후의 여행연습이랄까요...? 요즘 우간다는 우기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거의 매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공고 지역에는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학교 내 곳곳에 빗물이 내려가며 파여서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있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설치한 보도블록 덕분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학교소식

지난주 5월 4일, First Term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3주간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중 2명의 학생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큰 탈없이 마무리됨을 감사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학교 설립자이신 안정숙 선교사 소천 6주기 예배가 있었고,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저희 학교 자라이자 축제 중의 하나인 미스 골든베리



콘테스트가 학부모님을 모시고 코비드 이후 처음으로 생활리에 치러졌습니다. 우간다와 전체 아프리카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널리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설립자를 기억하며 예배드림

고학년 학생들 미술 프로젝트로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 벽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기로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간다의 주, 부식재료와 풍성한 과일을 주제로 대형 벽화(?)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기 전, 교회사무실에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와서 한번 한번 걸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도와주신 KCPC와 건강한 파송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말시험을 마치고 며칠간은 학년별 운동시합으로 방학을 준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합 전 기

선교사소식

펜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없어졌다가 저희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철저한 경건의 실천과 해외선교에 앞장서 220여 명을 선교사로 파송 한 모라비안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저희도 작은 공동체로 생활하는 같은 입장에서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개인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기도편지에 소식을 알렸더니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받은 분들이 계셔서 second term부터는 정기적으로 secondary school 장학생을 선

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금을 적립하려 합니다. 점차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첫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여행 중에도 안보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3 주간의 브레이크 기간에도 골든베리스쿨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새 학기 준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3. 6월 15일-30일, KCQ 단기 선교팀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3년 5월 7일,
우간다에서 안정근 & 정미향 선교사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MY국

▲ 종족명
마부리 나가 종족

▲ 인구
약 10,000명(인도 나가랜드 주 마부리 나가 종족 포함)

▲ 종교
기독교 90%

▲ 기타
공용어 문맹률 30%(종족어 문맹률 50%)

▲ 프로젝트 소개
2003년 종족어 습득을 시작하여 2013년에 신약 성경 번역이 완료되었고 2018년 4월에 출판되었다. 번역 과정 중 작업한 사전도 출판되었고, 현재 완성된 구약 성경 초역본의 자문 위원 점검을 진행하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출판된 신약 성경과 사전을 배포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기본 문해 교육과 성경 읽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종족어로 된 최초 약보가 있는 찬송가도 출판되었다. 번역된 성경을 바탕으로 오디오 성경도 제작하여 성경 읽기 운동에 활력을 더하기를 바라고 있다.

- ▲ 기도제목
1. 출판된 신약 성경을 통해 개인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도록
 2. 완성된 구약 성경 초역본이 자문 위원 점검을 마치고 출판되고, 출판 전에 종족어 철자 표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3. 아직 번역이 필요한 나가 종족들에게도 각 종족어로 말씀이 번역되는 길들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3학년도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 학년도 **Zoom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PC 710 Crisis Management of Ministers (목회자의 위기관리)

- 담당교수 : 이관직박사 (전 총신대 신대원 목회상담학 교수, Ph. D)
- 기간 : 2023년 6월 12-14, 19-21일, 오후 7시-9시30분



이관직박사
(전 총신대 신대원 목회상담학 교수, 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상담목사, Ph.D.)

저서
『기독교상담으로 본 잠언』(익투스)
『개혁주의 목회상담학』(대서)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지혜와 사랑)

ST 713 Our Neighboring Theologies (우리 이웃의 신학들)

- 담당교수 :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기간 : 2023년 7월 10-12, 17-19일, 오후 7시-9시30분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나눔과 섬김)』, 『광장의 신학』(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SFC),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SFC), 『전환기의 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5월 26일(금)
장 소: LaGuardia Plaza Hotel/퀸즈장로교회

예배 축제 위로 계승

환영합니다 welcome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하라
(엡:23)

CHURCH, **BE FILLED** WITH **JESUS** CHRIST EPHESIANS 1: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